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

여러분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실제로 본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아마 소리를 지르거나 사진을 찍고 싶어 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열광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해 줄 강력한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맞이하듯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만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주와 함께 걸어가네 다 같이

말씀봉독 요한복음 12:12~19절 다 같이

설 교 진짜 왕을 알아보는 눈 설 교 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주와 함께 걸어가네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나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